

생활정보

지활보호자 생계비 지급

생활 정부는 내년부터 76만6천 여명에 달하는 자활보호자에게 최저생계비수준(1인당 월 23만4천원)의 소득을 보장키로 하고 이들의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재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능력을 상실한 거액보호자(33만여명)에 대해서도 주거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문 개조 주차장에 시설비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에서 대문이나 담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시와 구가 최대 150만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차면 1구획(승용차 1대 넓이)을 설치하는 경우 △담을 개조하면 100만원 △대문개조시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을 철거한 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15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녹차잎 쓰레기양치 제거

생활상식 장마철을 쾌적하게 보내는 생활상식. 스카펫과 같은 섬유류는 햇빛에 말리면 △쓰레기통 악취는 녹차잎이나 커피찌꺼기를 함께 버리면 사라진다. △빨래에 흰 곰팡이는 햇빛에 내 놓아 살균한 뒤 표백제를 20배 가량 희석한 물에 담가 뒀다가 세탁한다.

서울대공원 자연학습교실

자연학습 여름방학을 맞아 과천 서울대공원 자연학습교실이 15일부터 8월20일까지 열린다. 동물과 식물, 곤충교실로 구분돼 운영되며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1시30분~4시30분 두차례 열린다. 접수는 8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 1,500 어른 2,500원. (02)500-7530·7354

장기입원자 위한 병원학교

병원학교 서울대병원이 이달 중순부터 백혈병이나 암 등 2~3년 동안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병원학교'를 연다. 학습단위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며 유치부는 그리기 만들기 위주로 교육한다. 초등부는 학년별 학습지도와 미술 음악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상품권 3종류 나온다

건강 일반인들이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한약 등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강상품권이 다음달 중순부터 나온다. 국민건강증진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 상품권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3종류로 발행되며, 건강상품권만 가지면 언제든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판매처는 전국 5천개 대형약국과 은행, 편의점 등이다.

식중독·O-157·말라리아·일본뇌염·냉방병...

여름철 위생관리 '초비상'

여름철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늘었다. 최근 논산과 부산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그 증가추세가 작년의 3.7배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울릉도 처음으로 O-157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일본뇌염과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가 92년 다시 나타난 말라리아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5년만에 제2법정 전염병인 공수병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하고 귀가했을 때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음식물 보관을 철저히 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O-157 및 식중독=음식물을 구입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가급적이면 여러 손을 거친 조리된 음식이나 반가공식품의 구입을 피한다. 육류는 냉동이 잘 돼 있는 것을 고르되 75도 이상에서 3분 이상 가열하고 조리전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고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냉창고 과산도 금물이다. 적어도 2주일에 한번 정도 세제·소독제를 이용해 청소한다. 국이나 찌개를 다시 데워 먹을 때는 반드시 끓인 후 먹어야 한다. 식기도 마다 할 행주는 설거지할 때마다 뜨거운 물로 행구고 수시로 삶거나 소독해 바짝 말려서

쓴다. 조리기구나 행주 등을 녹차에 헹구면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며, 생선 어패류 등의 음식을 녹차에 한 번 행군 후 냉창고에 두면 오랜 시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뇌염·말라리아= 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염은 3~15세, 노인들에게 주로 발병한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 발열, 구토, 언어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대책을 세운다. 말라리아는 연령에 관계없이 발병하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생선과 조개류 등의 해산물은 익혀먹어야 예방할 수 있다. 어물, 어구 등을 만져야 하는 어민들은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병=살내 기온을 26도 정도로 유지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조절하고 1시간마다 한 번씩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시킨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틀들이 외부의 바람을 쐬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지난달 경기 파주에서 국내에서는 15년만에 공수병 환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장면.

▲수인성 전염병=세균성 이질이나 콜레라 등은 음식물을 통해 급격히 전파되므로 반드시 익히고 끓여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방광반야경〉에 "보살은 깨끗함을 좋아하여 번뇌가 없으며, 외복이나 침대로 역시 깨끗하기에 병이 적다"는 말이 있다. 〈사분율〉에는 "비구는 깔개와 발 씻는 그릇, 발 닦는 수건, 물 담은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든 깨끗이 해야 한다"며 위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태아 간세포 실험' 윤리성 논란

불교·기독교등 반대...유태교는 찬성

인간 태아의 간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각 종교계는 제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불일 클리닉의 예비수정란과 낙태된 태아들을 이용해 진행되는 간세포 연구는 노화방지와 질병 치료의 소중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인간의 태아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는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는 당연히 태아의 간세포 연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가톨릭·개신교 학자들은 찬성하는 주장도, 반대하는 주장도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태아에게 아무런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보고 있는 유태교는 오히려 의학적으로 이로온 연구라며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불교는 태아를 인간으로 여겼기때문에 이번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익산신경정신과 박남진 원장은 "인간복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실험도 불교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실험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씨랜드 참사' 원인 부정부패

한국 부패도 96년 27위서 98년 43위

씨랜드 수련원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참사의 원인인 부실공사의 인허가를 지시한 화성군수와 이를 묵인한 비리공무원이 있었고, 청탁을 받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부실시공을 한 약력업자가 있었다. 또 이익만 남기면 된다는 씨랜드 관리부장이나 건물주와 같은 약력업자도 있었고, 동속자로 지정됐음에도 화재당시 술을 마시는 등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자격미달의 선생남도 부패구조에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이런 부패한 인간군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업자들의 협박과 상사의 압력을 이겨냈던 '대쪽 여객정' 이장덕씨가 있었고, 화재참사시 자신의 몸을 던져 인솔해간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화성군 마동초등학교

김영재 교사와 같은 참스승도 있었다.

국제투명성협회의 98년 국가 청렴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8년 순위는 43위로, 96년 27위, 97년 34위에서 계속 순위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곳곳이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깨끗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갈수록 부패도가 심각해진다니 세계화를 외치는 자체가 우습기조차 하다.

제2, 제3의 이장덕씨·김영재 교사와 같은 자기직분에 충실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나와야만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특했던 '대쪽 여객정' 이장덕씨가 있었고, 화재참사시 자신의 몸을 던져 인솔해간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화성군 마동초등학교

은 국민을 긴장케 했던 서해상의 교전이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 북경의 총리급 회담 무산, 12일로 예정되었던 남북농구경기 무산 등 최근 남북간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남북간 체제의 차이, 이를 지탱하는 사고의 차이를 실감케 한다.

지난 5일 북한 음악가 동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명암의 '알뜰한 당신' 등 500곡과 작사가 박영호의 '번지없는 주말' 등 108곡을 비롯한 가요 1천여곡을 남쪽에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남조선 당국은 이에 대해 사죄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분명 민족정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쯤 쟁점 넘어야 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법적 문제 이전에 양식의 문제다. 북한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세계저작권협약(UCC)이나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 설정의 기본정신이 개인의 창의정신을 높이 사고, 이를 고양하는데 있다

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적어도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가 취할 태도다. 남북간의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는 출판분야에서 더욱 심각하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1998년 9월 말까지 언론, 출판분야의 인적교류는 총 193건 승인에 41건이 성사되었다. 북한 저작물의 유입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 남한에 유통되었던 이념서적에서 벗어나, 국학 분야 원전이나 연구물이 일부 연구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서점에서 시판되고 있다. 이들은 표지만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쉽게 북한의 출판물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서로 다른 남북간, 또는 남한 출판업자간에 상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에 관한 공동 모색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념적 문제를 떠나 저작권 계약 체결 및 중개, 저작권 분쟁 해결, 수출입 중개, 자료의 수집과 전시, 법규의 재정비,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담당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욱 절실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운 마당에 저작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 체제에서 50년을 넘게 수행해 온 연구결과와 공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단복제 판매는 지양되어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 간행 책들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었던 책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수용하여 이념성이 약한 자료를 상반기준 일반자료로 풀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문제 외에 국내 출판사간의 경쟁도 가열될 수 있다.

1992년 북한에서 번역 출간한 '이조실록'을 국내 시판함에 있어 북한과의 출판권 설정 문제, 집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선정 문제, 북한 출판물의 개인 판매 가능성의 문제 등이 제기된 이래, 최근에는 북한과의 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CD를 고려사' 'CD를 팔만대장경해제' 'CD를 발해사' 등을 간행하였다.

이들의 계약 절차는 신앙에 있는 대형회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한다. 문제는 무단으로 복제할 한 서적에 대한 상호 신뢰 쌓아야

이념적 문제를 떠나 저작권 계약 체결 및 중개, 저작권 분쟁 해결, 수출입 중개, 자료의 수집과 전시, 법규의 재정비,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담당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욱 절실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운 마당에 저작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창경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 교수)

북출판물 유입 증가 저작권 협의체 구성 상호 신뢰 쌓아야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계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지리탐구 ①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 글로써 좌선의 의미와 함의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에서 말하는 좌선은 법

불교계전단 ① / 불교계 승·제가 인재양성사업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는 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제가 인재양성사업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① / 99년속문화의 해 뜨겁
우리 옛 절의 건축재첩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재첩.

문화시행 / 불교의리 현대적 해석
연서니 기드스의 제3의 길 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이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 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이롭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영하는 법

불교와 문화 전파: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불교 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무문관으로 배우는 신어록 읽는 법

한문의 기초부터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충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 <반야심경>을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신어록은 대부분 당송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 신어록 해석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심재동 저/신구판/383쪽/12,000원

혜원 역/신구판양장/376쪽/1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5층 3672-7181~5 팩스 3672-7186 **운주사** **통신판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집이나 사찰에서 편안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